

國立大學圖書館 發展을 爲한 懸案 分析

(An Analysis on Current Problem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한 상 완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차 례

1. 서 론
2. 대학교육의 변화와 대학도서관의 대응
3. 국립대학 도서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1 전문직적 차원에서의 대학도서관 정책의 문제와 개선모형
 - 3.2 국립대학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결 론

1. 서 론

우리나라의 몇몇 대학도서관들이 그간 현저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학도서관 근대화는 아직도 요원하고 해결해야 할 난제를 안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대학의 자유로운 연구와 발전, 그리고 풍요롭고 의미있는 삶의 터전을 닦기 위한 대학의 두뇌와 중추가 될 수 있는 대학도서관이란 생명체가 빈약한 재정, 부실한 자료와 시설, 전문직 사서의 부족등 많은 요인들이 대학도서관의 효율적인 업무와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교육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중의 하나가 대학도서관 역할의 정상화 내지 개혁이란 점을 전제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는 대학도서관의 본질적인 발현에서라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일련의 대학도서관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의 제기는 대학도서관이 고등교육에서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과정에서 점점 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학문 연구의 핵으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 넣어 보자는데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국립대학 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하여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교수, 대학원생 및 학부학생에게 학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적, 정보자료적, 시스템적, 시설적 측면에서의 서비스 체제가 취약한 현실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대학교육의 변화와 대학도서관의 대응

사회가 고도로 세련되고 복잡화되면 될수록 그 사회의 조직은 더욱 더 복잡다단해 지고, 그럴수록 사회는 도서관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는 것처럼 대학도서관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만큼 대학이 팽창하면 할수록 대학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지적, 정서적, 정보적 자료를 제공하고 교수진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교육의 한 능동적인 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이 대학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이의 정상화 없이는 대학교육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도 대학관계자 내지 정책담당자들은 교육자체에 대해서는 한층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할 도서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방치해 놓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서관은 열람실을 가진 보잘것 없는 책창고로서가 아니라 교육의 한 동태적인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 되어 있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은 재래식 강의방식이나 토론방식을 초월한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그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도서관 장서는 교과과정의 모든 과목과 연관되고, 조사 및 연구면에서 사서는 대학교원의 일원으로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교육은 문명과 정치·경제 체제의 표현이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개인들은 자기 스스로 충족시켜야 할 문제와 스스로 성장하여야 할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사서는 그 개인들에게 지적, 정보적, 정서적, 사회적, 직업적 측면의 원만한 성장을 위한 근거를 제공할 적격자이어야 그 소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

1) Albert P. Marshall, "This is Teaching/ Learning Thing: Librarians as Education," in *Academic Libraries by the year 2000: Essays Honoring Jerrold Orne*, ed. Mebert Poole. (New York : Bowker, 1977), p. 11.

이처럼 근본적인 견지에서 대학교육과 도서관은 “질이 높은 교육은 질이 높은 도서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²⁾ 벡(Buck, Paul)의 견해를 전적으로 수긍할 수 밖에 없다.

3. 국립대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전문직적 차원에서의 대학도서관 정책의 문제와 개선모형

참다운 대학이란 지식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며 이러한 대학기능의 발현 또한 대학도서관의 중요한 임무이며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목적이 뚜렷해 졌다면 이를 근거하여 대학도서관 경영정책의 기저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 8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³⁾ 즉, 기획(Planning), 목표 및 요구(Objectives/Requirements), 운영(Operations), 조직(Organization), 인사(Staffing), 시설(Facilities), 재정(Financing), 도서관 상호협력(Institutional Arrangement)이 그것이다.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으려면 위의 제 요소들을 어떻게 운용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은 통찰이 요청된다.

3.1.1 기획정책

대학도서관의 발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문이 기획에 관한 정책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우선 대학도서관이 하루 하루 움직여 나가고 또 그것이 모아져 어떤 원칙에 입각한 계획적인 업무가 되게 하기 위해선, 그러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확고한 조정기구를 도서관 내에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획과정에서는 세가지 층의 인사가 관련되는데 도서관을 이용할 사람 즉, 학생, 교수 및 연구원, 도서관을 운영할 사람, 그리고 도서관 발전에 대한 권한 부여와 재정지원에 책임을 질 사람이 그것이다.

기획정책의 수립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는 다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기획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은 기획을 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이거나 장기적인 배려를 하지 못하

2) Logan Wilson, *Keynote Speech: A Proceedings to the First Japan-U. S. Conference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in Higher Education, Tokyo, May 15 to May 19, 1969* (Tokyo: The Conference, 1970), p. 14.

3) Booz, Allen and Hamilton, Inc., *Problems in University Library Management* (Washington, D. C. : ARL, 1970), pp. 39-40.

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학도서관 기획정책은 1) 대학 운영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포괄적인 것이어야 하고, 2) 의사소통체계는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경영에 교수진과 학생들로부터 개방적이고 명문화된 의사소통채널(Channels of Communication)을 마련해야 하며, 3) 전문가의 사회가 바로 대학이란 점과 학문적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곳이 또한 대학도서관이란 점을 감안하여 융통성있게 계획을 세워야 하고, 4) 대학사회에 의하여 즉 학생과 교수에 의하여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5)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대학경영진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⁴⁾

둘째, 대학전체의 기획과 대학도서관의 기획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이는 기획정책에서 지양되어야 할 문제이다.

세째, 대학도서관의 기획은 효율적인 기획에 대한 기술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은, 1) 대학의 교육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요구가 반영된 기획정책을 수립하고, 2) 대학도서관의 목표와 계획은 대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하며, 3) 도서관 자원 즉 재정적 인적 도서관 자료, 그리고 시설등이 계획에 조화롭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⁵⁾

3.1.2 목표 즉 요구에 관한 정책

대학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초석을 마련하는 과정이 바로 목표 즉 요구에 관련된 정책 설정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의 목표 즉, 요구의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함을 갖기 쉽다. 1) 대학의 목표가 특별히 대학도서관과 관련하여 보면 명확하지 못하거나 미흡하게 설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하고도 보다 구체적인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대학의 목표 중에 설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대학도서관이 흔히 훌륭하게 정의된 목표를 세우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는 뚜렷하고 조리있으며, 분류된 목표를 설정해 놓는 대학 전체의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3) 대학도서관의 장서와 봉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대학도서관은 봉사와 장서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적절한 평가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5) 대학도서관 봉사에 비교적인 기초위에서 만들어진 통계를 수집하고 응용하는데 게으르다고⁶⁾ 진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 프로그램은 경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짜여지고, 대학

4) *Ibid.*, pp. 22-23.

5) *Ibid.*, p. 15.

6) *Ibid.*, pp. 25-26.

프로그램의 요구에 알맞도록 그 목표가 융통성이 있으며 최선의 것이 설정되는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3.1.3 운영정책

대학도서관의 건전한 운영의 과정은 기획, 예산, 조정 및 평가를 위한 운영정책에도 직결된다.⁷⁾ 그런데 이러한 운영정책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요청된다.

1) 운영정책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경영지침으로써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대학과 대학도서관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이며 프로그램에 맞춰 짜여진 예산제도를 채용하고 있지 않다. 3) 도서관에 일상적이며 반복되는 업무를 위해 채용된 직원의 능률 향상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4)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자료정리의 자동화(Automatic Data Processing ; ADP)를 대학도서관이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의 대학도서관이 결국 조사연구와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도서관이 자동화하고 업무의 표준화를 꾀하며 모델시스템을 채용하고 도서관간의 자동화된 조직의 전달을 위한 방법의 발전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점을 간과했든지 아직 여기까지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⁸⁾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은 적절한 운영정책, 체계, 직무요령등을 성문화해 놓을 정책적 배려가 바람직하다.

3.1.4 조직정책

도서관의 조직은 대학도서관의 프로그램이 목표하는 바를 성취시키기 위한 직원들의 봉사를 위한 재능과 에너지를 적절이 발휘하게 하고 지휘하며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기본적인 경영의 수단인 것이다.⁹⁾ 또한 조직은 업무의 균형과 조정을 위한 방법이며 내외에 대한 의사소통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기초 원리에 도전받는 조직 정책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존하는 대학도서관의 조직 계획은 요구에 대한 분석의 결과나 선택적인 배려라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결과에 근거하고 있는 경향이다. 2) 대학도서관의 최고 경영 그룹은 대학의 조직 구조내에 있어서 분명하고 적합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 3) 대학도서관은 중간 관리자가 너무 적기 쉽다. 4) 조직편람과 직무기술서가 없는 경우가 있고, 있다 하여도 매일

7) *Ibid.*, p. 27.

8) 한상완, “大學圖書館 發展政策의 基底,” 도서관 30 (1975) : 64.

9) Booz, Allen and Hamilton, Inc., *Problems in University Library*, p. 31.

매일의 업무운영 일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¹⁰⁾ 이러한 조직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분명히 모호성을 배제할 명문화된 조직정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조직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인 사서의 승진을 곧 행정보직상의 승진을 의미하는 통념을 지양하고 대학사회의 직급인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등의 학문적 직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개념이 대학도서관의 조직구조를 현대화시키는 첩경이라는¹¹⁾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3. 1. 5 인사정책

인사정책은 가장 중요한 대학도서관 경영정책이며 특히 전문사서직이 봉사해야하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된다.

1) 인사에 대한 전문직으로서의 채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발전되지 않고 또 사용되고 있지 않다. 2) 도서관의 현직 직위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즉 주제별 및 도서관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주제전문가(Subject Specialist)나 다른 전문사서에게 적합하지 않은 현상이다.¹²⁾

이러한 문제는 대학도서관 발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1) 대학 및 연구도서관의 전문사서직(Professional Librarianship)의 발전은 사서의 주제배경과 도서관학 배경이 모두 대학원 교육수준이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현행 한국의 사서 교육제도는 내용과 학제가 개혁되어야 바람직하고, 2) 전문사서가 배치되는 것이 대학 및 연구도서관을 발전시키며, 3) 전문사서로 구성된 전문직 단체의 조직은 전문사서직 발전에 있어서 큰 요인이 될 것이며, 4) 도서관학 및 사서라는 명칭의 변경은 전문사서직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¹³⁾ 이러한 기저 위에서 대학도서관의 인사정책이 수립되는 단계가 소망스럽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도서관 전문사서의 교수 지위(Faculty Status)문제이다. 미국의 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

10) *Ibid.*, pp. 31-32.

11) David Kaser, "Modernizing the University Library Structure,"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31 (1970) : 229.

12) Booz, Allen and Hamilton Inc., pp. 32-34.

13) 한상완 "專門司書職의 發展論," 도서관 29 (1974) : 22.

기준위원회(ACRL Committee on Standards)에서 작성된「대학도서관을 위한 기준」(ALA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제Ⅳ항 직원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전문직 사서는 교수의 지위를 누려야 하며 교수진이 향유하는 은전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는 재직보장, 병가, 충분한 휴식, 적절한 퇴직계획, 7년만에 주는 특별휴가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서의 봉급 스케줄은 교수진과 동일하여야 한다.”¹⁴⁾ 이러한 석사학위 이상을 지닌 전문직사서의 교수지위(academic rank)에 관한 문제는 많은 조사연구가 있는 바, 그 중에서 1971년 6월에 달라스에서 열린 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에서 채택된 「대학도서관 사서의 교수 지위를 위한 기준」(Standards for Faculty Status for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은¹⁵⁾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결정적이며 널리 공인된 문서라 할 수 있다.

또한 좀더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문사서직은 모든 학문의 근거가 되는 분류에 관여하고, 학자가 사용하는 풀리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서지(bibliography)라는 열쇠로 해결을 하며, 기록과 도서관의 역사는 인간문명의 긴 발전과정을 통하여 같이 병행되어 존재했으며, 전문사서에게나 학자에게 똑같이 가장 소중한 모든 분야의 문화의 축적된 기록에 관여하며, 인류의 기나긴 상향성 의지에 영향을 주고, 인류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일에 계속적으로 관여하는 사상의 교환에 전문사서는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분야에 전문사서는 타인에게 진리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는 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문제에 직접 의미있게 참여하는 충분한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¹⁶⁾ 결국 교수직과 동등한 지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니, 대학도서관에 전문사서가 교수지위를 갖게 되면 대학도서관장이 도서관학의 소양이 전연 없는 교수로 보임되는 현재까지의 통례는 자연히 지양될 것이고, 대학도서관 경영의 전문적인 도서관학적 배경이 있고 유능한 전문사서가 대학도서관의 책임을 맡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14) 미국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 기준위원회편 “대학도서관을 위한 기준,” 이병목역, 도협월보 4(1963): 24.

15)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Standards for Faculty Status for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ans,” *CRL News* 8(1972): 210-212.

16) Louis R. Wilson, “What Type Research Libraries?” *Readers in Academic Library*, ed. M. M. Reynolds (Washington, D. C.: National Cash Register Co., 1970), p. 222.

런 상황의 전개가 곧 대학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3. 1. 6 시설정책

일반적으로 모든 대학도서관들은 최근의 등록 학생수의 증가, 장서의 증가, 봉사량의 증가에 따르는 물리적인 팽창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대학도서관 시설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대학도서관에 있어서의 공간의 부족은 계획된 시설 이상으로 급격한 부족현상을 나타내며, 2) 장서의 소장 장소와 시설의 위치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려 있다. 즉, 도서관 시설 및 장서를 중앙화(centralization) 할 것인가, 분산화(decentralization)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의 일치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3) 대학도서관은 정기적으로 건축공간의 정상적인 사용에 대하여 점검하지 않고 있다.

대학도서관 시설을 유지하고 팽창시켜 나아감에 있어 그 기본정책은 위의 세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선에서 세워지고 고려되어야 한다. 한가지 첨가되어야 할 문제는 도서관의 자동화에 따른 주문, 정리, 배포, 자료보관의 효과적인 자동화 시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¹⁷⁾

3. 1. 7 재정정책

도서관의 재정은 점점 더 복잡해 지고 도서관 프로그램과 봉사를 위한 다각적인 기금의 확보와 발전을 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이러한 재정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대학도서관과 대학행정과의 사이에 상호 기대하는 것의 균형이 안 맞는다. 대학총장과 도서관장 사이에 고등교육이 당면한 재정적 곤란과 그들의 미래 도서관의 재정적 뒷받침의 응용방법에 있어서 의사소통 및 이해의 결핍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¹⁸⁾ 대학총장은 도서관이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데 대하여 이견을 갖고 있는 반면 도서관장은 교수, 학생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봉사를 위하여 지속적이며, 상당량의 재정이 조달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과 대학도서관은 근본적인 기획의 문제에 까지 소급되는 의사소통의 효율화와 상호이해의 축진을 통한 보다 밀접한 의견을 토대로 한 재정정책의 수립에 노력해야 될 것이다. 또한 대학당국 혹은 정부의 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보다 다각적인 방법인 재단,

17) Booz, Allen and Hamilton, *Problems*, p. 8.

18) *Ibid.*, p. 36.

재벌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끌어 들이는 근본적인 활동이 뒷받침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 미국에서 카네기 재단이 미국의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예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1.8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정책

대학도서관의 상호협력 정책은 도서관 비용의 증가, 팽창의 지속, 값이 오르는 장서의 복본문제, 학자들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증대등, 제 요인으로 인하여 점점 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도서관 상호협력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상호협력할까에 대하여 도서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다.

2) 대학도서관장과 대학 책임부서의 인사들이 도서관 상호협력이 도서관의 재정을 아낀다는 사실과 개개 학자들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한 대학도서관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전체적인 자원을 갖고 각양각색의 요구와 정도의 차이가 있는 다양한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를 요구하는 현대의 학문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의 상호협력은, 특히 대학도서관 건물을 자유로 드나들며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협력문제 (physical access), 서지적협력 (bibliographic access), 도서선택 구입 협력문제 (acquisition) 및 운영의 협력문제 (administration) 등의¹⁹⁾ 범주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의 정책수립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것이다.

3.2 국립대학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학도서관이 우수하지 않고는 대학교육과 학문의 우수성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은 필수적인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국립대학 도서관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발전 지향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19) Robert H. Blackum, "Interlibrary Cooperation," in *Research Librarianship*. ed. Jerrold Orne (New York : R. R. Bowker, 1971), p. 53.

3.2.1 국립대학 도서관 직원 및 직제

10개 국립대학교의 현황을 보면 사서 1인당 학생수는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평균 770명이 된다.²⁰⁾ 이는 외국의 경우에 비해²¹⁾ 너무 과중한 봉사 부담량을 지니고 있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는데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고, 따라서 봉사내용과 능률이 부실한 상태 일 수 밖에 없다.

현 국립대학교의 직원수 책정을 하는데 있어 법적인 기준은 지난 1977년에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즉, “학생수 500인까지는 2인, 초과하는 그 초과하는 800인마다 1인의 사서직원을 증치한다”는 규정이²²⁾ 그것이다. 이 기준을 기초로 하여 1985년 3월 현재 10개 국립대학교 도서관의 전문사서직을 집계한 결과 20%정도가 초과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사서직 1인당 담당 학생수는 너무나 과중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애초에 기준을 책정하는데 있어 학생수만을 변수로 잡은 사실과 직원수를 낮게 규정한 데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직원수를 산출할 수 있는 모형이 제시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한 것이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위원회에서 제정한 한국도서관기준중 대학도서관 기준이다.²³⁾ 이 기준은 진진적인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표로 삼을만 하다고 평가된다. 이 기준에 준거하여 국립대학 도서관 직원수의 적정선 여부를 조사해 본 바는 <표1>과 같으며 이에 근거하면 10개 국립대학교 사서직원의 부족상황은 총 37%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10개 국립종합대학의 적정 직원수는 한국도서관협회 기준에 의거하면 435명 이어야 하는데 현인원은 275명에 불과하여 그 충족율은 63%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 늘어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문헌정보학 정규교육을 받은 사서를 임용하되 학사 출신의 경우 국내 대학들이 동일한 보조를 취하여 7급(사서보)으로 임용하여야 타당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현행 직제는 사서의 최고 직급을 4급 사서관으로 상한선을 긋고 있어 전문직 사서의 사기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도서관 업무의 전문

20) 國立大學圖書館報 2 (1984) : 99-101 에 기록된 통계수치에 근거

21) 미국의 경우는 240명. (ARL Statistics, 1982-1983)

22) 도서관법시행령 제 6조 1항 3호(대통령령 제 8583호)

23)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위원회 편, 한국도서관기준(서울: 동 협회, 1981), p. 29.

적 속성으로 보아 문헌관리직군으로 독립시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현행 사무분장사항을 보면 수서과는 총무적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어 기능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수서과의 주된 업무가 자료의 선정과 수집이라는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인 만큼 전문직인 사서관으로 보하는 것이 도서관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도서관 직원의 T. O. 문제도 적정선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되겠지만, 충원은 못한다 하더라도 도서관 업무 전담조교를 임용하여 운영한다면 부족한 도서관 인력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2.2 도서관장의 지위 격상

도서관장은 전 대학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행정가이며 정보자료와 학문의 연찬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적 위치에 있으므로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종합심의 하기 위한 학장회의 혹은 교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도서관 운영의 제반사항을 논의,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 선진제국의 대학을 볼 때 도서관장을 부총장으로 보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에도 우수한 몇몇 대학들이 이미 도서관장을 학장회의 내지 교무위원회에 정식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장의 현 직급은 학장 수준으로 승격되어야 하며 이에 준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3.2.3 장서

10개 국립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량은, 「대학 설치 기준령」인 학생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천권중 많은 수 이상의 도서와 매년 학생정원 1인당 3권 이상을 추가한다는²⁴⁾ 법적 기준치와 비교하여 보면 그 확보량이 평균 36%에²⁵⁾ 불과한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연간 증가량도 학생 1인당 평균 1.2권으로²⁶⁾ 나타나 학부학생들에게 필요한 최저 기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적 및 연구 요구를 만족시켜 대학사회의 진정한 지적 자료원으로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법정 최저기준치에라도 도달토록 해야 하겠다. 더 나아가 대학교육의

24) 대학설치 기준령 제 12조 제 3항 (개정 1983. 6. 25 대통령령 제 11153호)

25) 國立大學圖書館報 2 (1984), p. 103을 분석한 수치임.

26) *Ibid.*

표 1 한국도서관기준에 의한 국립대학교 도서관의 적정사서직원수 (1984. 1. 1 현재)

구분 대학교명	학생 수 (대학원생 포함)	기본 사서수*	봉사대상자 증원비례 사서 수	소장장서량 비례사서수	연간장서 증가량 비례사서수	계	사서직원 현황	부 족 사서수	충족율 (%)
강원대학교	9,399	10	8	3	4	25	15	10	60
경북대학교	19,984	10	19	12	4	45	26	19	58
경상대학교	11,552	10	11	2	3	26	14	12	54
부산대학교	24,766	10	24	13	9	56	35	21	63
서울대학교	29,916	10	29	57	12	108	92	16	85
진남대학교	24,181	10	23	7	7	47	25	22	53
진북대학교	15,600	10	15	7	6	38	21	17	55
제주대학교	5,459	10	4	2	3	19	9	10	47
충남대학교	20,339	10	19	5	9	43	22	21	51
충북대학교	9,597	10	9	3	6	28	16	12	57
계	170,769	100	161	111	63	435	275	160	63

* 기본사서수에서 단과대학별 1명씩의 주제전문가는 제외하였음.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자료 확충을 위한 개선책으로서 학과당 6,000 책에 연간 증가수를 1인당 2책이상에 도달하도록 하든가²⁷⁾ 한국도서관 기준을 적용, 한국의 대학도서관 실정과 외국의 제 기준을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한 바있는 이병목박사의 권장 기준처럼 학생 1인당 20책 이상으로²⁸⁾ 최저 기준을 삼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3.2.4 자료구입예산

자료구입을 위한 기본비용의 산출은 오래 전부터 도서관 운영자와 대학 관리자간에 상당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회계담당자는 예산을 일찍 작성하거나 자기 도서관의 예산과 거의 유사한 도서관의 예산을 비교하거나, 대학의 교육목표를 고찰하는 등의 일에 대하여 여러가지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운영자는 도서관구입에 따르는 실제적인 비용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⁹⁾

10개 국립대학교 현황을 보면 대학의 총예산에서 도서관의 자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평균 1.4%로³⁰⁾ 나타나 외국의 도서관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절대적으로 충분치 못한 대학예산내에서라도 도서관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하여 자료비의 적절한 증가가 요망된다. 더불어 이를 대학설치기준령 제 12조에 대학경상비에 대한 비율을 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대학도서관예산은 대학의 경상비의 5%이상으로 책정하도록 국고 및 기성회비에산편성지침에 시달토록 행정조치가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한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의견이나 한국도서관협회 기준인 4%선의 유지는 설득력 있는 현장의 소리이며 최저기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3.2.5 신입생에 대한 도서관 이용교육 실시

대학에서의 학문생활의 성패는 풍부한 도서관 자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현재 도서관에서나 학교 당국에서 이에 대해서 신입생들에 대한 철저하고 계획적인 안내나 학습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27)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위원회, pp. 32-33.

28) 李炳穆 “韓國의 大學圖書館基準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83), p. 158.

29) 최정태 “도서관 자료구입비 책정에 관한 고찰” 國會圖書館報 20(1983) : 11.

30) 國立大學圖書館報 2(1984) p. 102를 분석한 수치임.

도서관에서는 일차적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어도 학과 단위로 5-6시간의 도서관 및 문헌정보 이용법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서 교무처에서는 이를 교양과목 이수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외국과 같이 대학신입생에게 의무적으로 도서관이용 및 문헌정보 조사법을 이수시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2.6 도서관업무와 이용의 전산화

일상적인 업무 즉 자료의 목록, 수서, 정기간행물관리, 정보검색서비스, 대출등을 점차 전산화하여 본격적인 도서관자동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무적인 일상업무로 부터 사서직 본연의 정보서비스 기능을 심화내지 정상화시키는 계기란 차원에서 도서관 전산화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데이터 베이스의 이용과 데이터 뱅크와의 연결이용등을 포함한 도서관자동화 계획을 추진하고 각 대학 도서관의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2.7 상호협력

부족한 지적, 정보적 자료들에 대하여 우리는 자료의 공유(resource sharing)개념을 우선 전제할 필요를 느낀다. 같은 설립자 즉, 국립대학들이 그 각각의 소장자료를 국립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특히 교수를 포함한 연구자들에게 개방하고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협력의 제1단계인 자료열람(physical access)의 기회부터 주지 못한다면 민족의 발전이란 큰 전제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유형의 상호협력 형태 중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 차근 논의, 계획, 실천하는 슬기와 자세를 촉구하고자 한다. 근래 국공·사립을 망라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상호대차제도를 위한 일련의 노력과,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세미나등의 개최, 그리고 국립대학 도서관협의회에서 실시한 몇차례의 상호협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가능성을 위한 노력등은 바람직하며, 한편 당연한 움직임이라할 수 있겠다.

4. 결 론

대학의 자유로운 연구와 발전, 그리고 젊은 지성인들이 풍요롭고 의미있는 삶의 터전을 닦기 위한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두뇌와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성장 발전하고 있지 못한 이유를 대학과

관계당국에 묻고싶다. 빈약한 재정, 부실한 자료와 시설, 전문직사서와 사무직원의 부족, 대학당국과 교수들의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 비전문가에 의한 도서관 경영등의 고질화된 문제에서부터 수동적인 도서관인의 자세, 복잡하고 비능률적인 관리규정, 불필요한 반복을 거듭하는 정리업무등의 기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요인들이 대학도서관의 효율적인 업무와 근대화를 저해시키고 있다고 한³¹⁾ 대학도서관의 어느 실무책임자는 지적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글은 국립대학도서관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대학도서관에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대학도서관 발전정책에 관한 기저가 무엇인가의 논의는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학문의 연구를 심화시켜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진보에 기여하며 그 중핵의 소임을 맡고 있는 대학이 진정으로 대학다워지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이 바람직한 비전 즉, 정책을 갖고 있도록 하자는 데 의도가 있었다. 그것을 토대로 대학도서관이 발전하고 진전된 전 도서관 봉사를 대학사회에 다시 되돌려 주는 과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인 시도였다.

둘째로, 현 국립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체제가 취약하므로 이를 시급히 확충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서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혹은 각 도서관에서 팀을 이루어 대학도서관의 개선방안과 발전의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정책적인 지원을 하여야 대학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서관장의 지위를 단과대학장 이상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도서관 운영의 제반사항을 전 대학차원의 공식회의에서 논의,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도서관 직원의 질적 향상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재 교육에 대한 계획과 직원규모에 대한 모형안을 수립하고 여기에 접근토록 노력하여야겠다. 정규교육을 받은 사서를 임용하되 전 대학이 7급(사서보)으로 임용토록하고, 도서관 전담조교제도를 운영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4) 장서기준은 학부학생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정보제공에 필요한 최저기준에라도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1) 신숙원, "대학도서관의 참모습," 國會圖書館報 14 (1977) : 11.

5) 자료비의 대폭확충과 대학총예 산액의 4% 이상은 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6) 신입생에 대한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도서관 업무와 이용의 진산화는 사서직 본연의 정보서비스 기능을 심화내지 정상화시키는 계기란 차원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진산화를 점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8) 국립대학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은 부족한 정보와 자료이용의 근대화란 점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교육의 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 역할의 진작, 일반적으로 안고있는 경영상의 문제점과 그 대안, 그리고 현재 당면한 우리나라 국립대학도서관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들을 제시한 이유는 이용자인 학생과 교수진, 그리고 정보, 자료의 제공자인 대학도서관과 전문사서간의 괴리를 좁히고 그 연결(linkage)의 효율을 증대시켜 대학도서관이 갖는 기능을 심분 발휘케 하자는데 논의의 초점이 있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